

호남·제주 신흥부부, 5년새 9.7만쌍 ↓ … 자녀수도 감소세

인구 감소와 청년층 인구 순유출 영향 등으로 호남·제주지역 신흥부부 수가 줄어든 가운데 초혼 평균연령은 높아지고 자녀가 있는 부부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5년 전(2019년 기준)과 비교하면 자녀를 둔 신흥부부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나 평균 자녀 수는 모두 1명 이하로 나타나 저출산 현상의 고착화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2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제공한 '호남·제주지역 신흥부부의 삶(2019년 대비 2023년 조사 수치)' 자료에 따르면 신흥부부 수는 2019년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이 가장 많은 3만445쌍(-20.5%)이 줄어든 가운데 광주 2만5954쌍(-23.4%), 전북 2만7473쌍(-23.9%), 제주 1만3831쌍(-21.8%) 순으로 모두 9만7703쌍 감소했다.

2023년 시군구별 신흥부부 수는 전북 전주(1만203쌍), 제주(1만458쌍), 광주(8만210쌍), 광주(7876쌍), 전남 순천(5394쌍) 순 등으로 많았다.

2019년 대비 전북 완주군(14.4%), 광주 동구(12.4%), 전남 무안군(10.3%), 전북 김제시(0.5%)는 증가했으나 그 외 시군구는 모두 감소했다.

2023년 기준 자녀가 있는 신흥부부 비중은 전남 64.5%, 광주 62.5%, 전북 62.1%, 제주 59.2% 순이었으며 모두 전국(56.4%) 보다 높았으나 2019년 대비 광주(-3.8%p), 전북(-4.8%p), 전남(-4.8%p), 제주(-5.0%p) 모두 감소했다.

2023년 기준 평균 자녀 수는 전남 0.97

호남지방통계청, '호남·제주지역 신흥부부의 삶' 신흥부부 평균 자녀 수 1명 이하 '저출산 고착' 전남 신흥부부 2019년 대비 3만여쌍·20.5% 감소 신흥부부 수 전주시·제주시·광산구·북구·순천시 순

명, 전북 0.92명, 광주·제주 각 0.86명 순으로 모두 전국(0.77명) 평균보다는 많았으나 2019년 대비 광주(-0.08명), 전북(-0.08명), 전남(-0.10명), 제주(-0.09명) 모두 감소했다.

혼인 종류별로는 2019년 대비 초혼 비중은 광주 80.5%(+0.1%p)로 늘었으나 전북 72.75(-1.0%p), 전남 70.6%(-1.1%p), 제주 71.6%(-0.0%p)는 모두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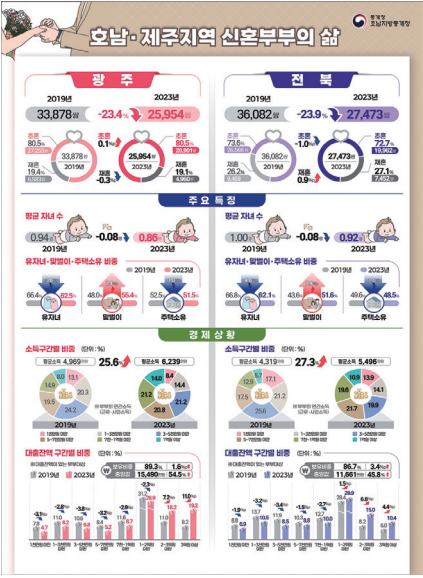
재혼 부부 비중은 광주 19.1%, 전북 27.1%, 전남 29.2%, 제주 27.6%이며, 광주는 전국(20.7%) 대비 1.6%p 낮았다.

이 중 2019년 대비 재혼 비중은 전남 영암군(13.3%p), 전북 임실군(11.4%p), 전남 보성군(8.4%p), 전남 구례군(8.1%p), 전북 진안군(7.7%p) 순 등으로 비중이 증가했다.

같은 거처에 함께 거주하는 신흥부부 비중은 광주 86.8%, 전북 83.4%, 전남 81.4%, 제주 86.9%이며 전국(88.5%) 대비 모두 낮았다.

2023년 기준 혼인 평균연령 중 초혼 연령을 살펴보면 남편은 광주 33.1세, 제주 33.0세, 전북 32.9세, 전남 32.8세 순이었으며, 아내는 광주·제주 각 30.7세, 전북 30.3세, 전남 30.1세로 2019년보다 모두 늘었다.

신흥부부 중 아내가 연상인 비중은 제



5년전 대비 주택 소유 신흥부부 비중은 전남(3.6%p), 제주(4.6%p)는 증가했으나 광주(-1.0%p), 전북(-1.1%p)은 감소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흥부부 비중은 광주 82.8%, 전북 69.9%, 전남 67.4%, 제주 30.8% 순이며 광주 외에는 전국(70.0%) 대비 낮았다.

2023년 기준 신흥부부 가구의 만 5세 이하 자녀 보유 형태 비중은 어린이집(제주 58.9%→전북 51.0%→전남 50.7%→광주 50.1%), 가정 양육(광주 37.1%→전북·전남 각 36.5%→제주 33.4%) 순으로 높았다.

호남통계청 관계자는 "호남·제주지역 신흥부부 대한 결혼, 출산, 보육, 경제 활동, 주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호남·제주지역 신흥부부의 삶' 조사자료가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산 등 관련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8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25 남도장터 로컬 우수상품 품평회'에서 전남도-한국전력-전남우정청-남도장터의 기관 상호발전과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 상생·나눔사회공헌활동 협력을 위한 MOU를 하고 있다.

남도장터, 지역 농수축산물 우수성 홍보·판로 확대 로컬 우수상품 품평회… MD·품평·라이브커머스

재단법인 남도장터는 28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남도장터 로컬 우수상품 품평회를 열어 지역 농수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판로 확대에 나섰다.

'남도의 맛, 밥상위에 피어나다'를 주제로 열린 품평회는 국내 온라인 유통업체 상품기획자(MD) 33명과 전국 우체국 소포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전남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행사엔 남도장터 임점 업체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지원사업인 로컬상품관에 선정된 총 60개 업체가 참여해 약 300개 제품이 전시됐다. 유통 전문가들은 각 부스를 방문해 시식하고 품질을 평가하며 시장성과 개선점에 대해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부스를 통해 현장 상품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전국 소비자에게 전남 먹거리도 실시간으로 소개했다.

특히 전남도, 전남지방우정청, 한국전력공사, (재)남도장터가 상호 발전

과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생·나눔 사회공헌활동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지역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약에 따라 남도장터 한전 제휴회원의 매출액 1%를 전남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 농수축산물의 품질과 가치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든든한 판로가 되길 바란다"며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병중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장은 "공기업으로서 지역과 함께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 뜻깊다"며 "이런 협약을 계기로 에너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정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 소포의 물류 인프라와 플랫폼을 활용해 전남 우수상품이 소비자에게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전라남도가 최고의 고품질 명품쌀 생산과 쌀소비 촉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올해의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해남 '땅끝햇살' 등 10개 우수 브랜드를 선정했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4개 전문 분석기관에 식미평가, 외관품질, 품종순입과 기계품질, 안전성 검사 등을 의뢰해 이뤄졌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해남 '땅끝햇살'이 차지했다. 모든 외부평가에서 고루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단일품종 증가율, 수출실적 등 큰 성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최우수상에 장흥 '아르미쌀', 우수상에 영암 '달마지쌀', 영광 '사계절이 사는 집', 나주 '왕건이 탐낸 쌀', 장려상에 무안 '황토랑쌀', 순천 '나누우리', 강진 '프리미엄호평', 함평 '우렁색시미', 진도 '보배진

전남도, 해남 '땅끝햇살' 등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품질·식미·안전성 등 우수… 마케팅비 1억5천만원 차등 지원

미쌀이 선정됐다.

선정된 10개 브랜드에 대해서는 브랜드 쌀의 품질 향상과 판매 촉진, 홍보 마케팅 등 사업비로 총 1억 5천만 원을 인센티브로 차등 지원한다.

이번 10대 브랜드 중 9개 브랜드가 전남도에서 개발한 새청무 품종으로, 그 품질과 맛의 우수성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새청무쌀은 전남도가 지난 2016년 지역 특색에 맞게 개발한 품종으로 밥을 지을 때 찰기가 돌고 윤기가 흐른다. 무엇보다도 재배 안정성이 뛰어나 농업인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현재 전남 재배면적의 61%를 점유한 대표 품종이다.

전남도는 전남쌀의 차별화·고급화를 위해 생산·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품질관리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전남쌀 소비촉진을 위해 농업중앙회 전남지역본과 함께 수도권과 전국 대형유통업체 공동마케팅도 추진하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 고품질 쌀이 세계로 뻗어가도록 글로벌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라며 "전남쌀이 국내외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오는 6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국제 쌀 산업 박람회에 참가해 전남도 홍보관을 운영하고 행사장을 방문하는 국가별 바이어와 수출상담회를 진행, 전남쌀의 우수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신종필 기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 6월30일까지 접수… 시설·장비 등 최대 5억 지원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2026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대상자를 오는 6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며 10ha·비 이의 품목 2ha 이상)을 생산·가공·유통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로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최대 5억 원(보조 70%, 자부담 3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은 일반농산물과 별도로 취급해야 하는 친환경농산물 특수성을 반영, 생산부터 유통까지 아우르는 친환경농산물 전용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선진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45개소에 약 235억을 지원해 생산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체계적 관리와 고부가가치 제품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유 인 기자

